

※칼럼 내용은 본 신문의 論調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데스크

윤정일 디지털뉴스팀장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를 꼽으라면 단연 상어를 들 수 있다. 상어가 커다란 입을 벌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앞세워 헤엄칠 때는 공포감마저 들게 한다. 상어가 입을 벌린 채 헤엄치는 것은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다. 상어의 아가미에는 운동기능이 없다. 때문에 입을 벌린 채 계속 움직여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쉴새 없이 아가미를 움직이면서 펌프질하듯 물을 빨아들이며 순간적으로 산소를 걸러내는 일반 어류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상어의 치명적 약점은 또 있다. 상어에는 물고기들의 몸에 있는 '부레'라는 공기주머니가 없다. 어류는 부레 속의 기체 양을 조절하면서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다. 하지만 상어는 부레가 없기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헤엄쳐야만 한다. 또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몸도 가벼운 연골(물렁뼈)로 돼 있고, 내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도 비중이 가벼운 기름으로 채워져 있어 몸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한다.

생존을 위한 상어의 진화(進化)

이처럼 상어는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진화시켰고, 사자의 6배에 달하는 특유의 치악력(무는 힘)을 앞세워 바다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어처럼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진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과정을 혁신(革新·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혁신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0대 혁신기업' 중 한국 기업은 네이버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정도에 불과했다.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을 뜻하는 핀테크 업계의 혁신수준은 더욱 처참하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KPMG가 지난해 선정한 세계 100대 혁신 핀테크 기업에 한국 업체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기업은 조직구조, 프로세스, 시스템 전반에서 혁신해야 한다. 혁신의 전제는 기존에 안주했던 현실에 대한 파괴다.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대 교수는 '혁신기업의 딜레마'라는 책에서 '시장지배력을 상실한 초우량 기업들'의 특징으로 ▲기존 고객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고객이 원하는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더 나은 수익을 약속하는 혁신에만 자본을 투자한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기술 획득 과정에서부터 유통까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되 서로 조화로우며 추구하는 운영의 묘야말로 혁신기업이 가져야 할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가미와 부레도 없이 바다에서 최강의 포식자로 우뚝 선 상어의 진화(進化)는 대한민국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요일 아침



김수민 라온위즈 대표 (스피치디자이너/방송인)

유대인과 한국인은 공통점이 많다고 한다. 역사적 시련기를 오래도록 거처왔고 전세계에 흩어져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적 근성과 부지런함, 천재성도 그렇다. 어릴 적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하는 유대인,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나가며 열심을 내는 한국 크리스천들과도 공통점이 있다. 한반도가 외세의 침입을 당한 횡수는 1천 번이 넘는다고 한다. 무능한 지도자들 때문에 민초들의 말 못할 고통이 있어왔다. 그러나 한국은 6.25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1인당 3만불 시대에 살고 있다. 유대인은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할 때 아이들도 150만 명이나 포함됐다.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자는 살렸고 그렇지 못한 노인과 아이들은 무차별적으로 학살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도 재기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겪었지만 약속의 땅을 회복한다는 성경의 예언을 믿고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불리한 군사력으로 아랍동맹국을 물리치고 동예루살렘과 시나이반도, 골란 고원 등을 점령한다.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4%밖에 되지 않지만

“Never again, 역사를 잊지 말자”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대인이 580만명으로 3%이지만 100대 기업의 40%가 유대인 기업이고 미국 월스트리트도 유대인들이 장악했다. 록펠러, 로스차일드 등 재벌들을 많이 배출했고 수천 조의 재산 중 스위스 제네바 등지의 귀금속 보관소 금만 해도 4700조가 넘는다고 한다. 요즈음 그와 점심 한번 먹는데 500만 불을 내야 한다는 세계적인 투자가 조지 소르스도 유대인이다. 유대인을 칭송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주입식이 아닌, 토론회식 교육으로 유명한 그들이 우리 국민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역사 교육이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유대인들이 당한 역사적 시련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AD 70년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예루살렘 멸망이다. 66년에서 70년에 걸친 유대인 반란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도 로마의 유다 통치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 온 엘리아자르 벤 아이르스는 960명을 이끌고 천연 요새인 마사다 언덕으로 피난을 갔다. 마사다는 곡물 창고와 저수지가 있어 식량과 물 공급이 안정적인 탓에 로마군의 포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저항하며 몇 년을 버텼다. 로마군들이 요새로 진입을 시도할 때마다 주민들은 큰 돌들을 떨어뜨려 그들의 진입을 막았다. 수없이 돌을 맞으면서도 72년부터 73년에 걸친 겨울, 로마군단은 200m 위쪽 언덕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비탈진 경사면을 지었다. 봄이 되자 로마군은 경사로 위로 강력한 투석기와 성문 파괴용 대형 망치를 장착한 공성탑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극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로마군의 진입이 거의 가까워졌을 때, 마사다 요새에서는 비장한 결단을 내린다. AD 73년 4월 15일, 민족 지도자 엘리아자르는 명예롭게 자살하는 편을 택했고 부하들과 유대인들을 설득해 서로를 죽이는 자살조를 편성한다. 제비로 열 명의 시카리 전사를 뽑아 사람들을 죽이고 최후에는 서로를 죽이는 임무를 맡았다. 가장은 자기 가족을 죽이고 자살했다. 그들이 어떻게 명예로운 최후를 마쳤는지 후세에 전할 증인으로 한 사람만 살려두었다. 다음 날 성벽을 돌파하고 들어간 로마군은 경악했다. 중요한 것은 전세계에 흩어져있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조국에 전진이 나면 배운 사람들부터 조국으로 달려와 총대를 맨다는 사실이다. 여지도 군대에 가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논산훈련소같은 곳에서 훈련을 마친 후 반드시 마지막 코스로 마사다 언덕을 올라가 이렇게 외친다. “Never again, never again!”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는 6.25가 먼지인지, 일제강점기가 먼지인지 헷갈리거나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이돌그룹 신상은 졸출 위위하면서도 증조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하는 아이는 거의 없다. 통일을 기대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하며 후손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밥상머리에서도 각자 휴대폰으로 SNS 하느라 서로 쳐다보지 않는 악습을 버리고 얼굴을 보며 부모가 있는 현대사라도 나누는 습관을 가져보자. 그래야 민족의 미래가 있다.

기자의 눈



최창봉 기자 ccb1970@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되자 한국전력과 광주시, 전남도를 비롯 지역민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전남 나주에 위치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일원에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기업들이 입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5월 말까지 에너지밸리에 유치된 기업은 310개로 총 투자금액 1조2678억원, 신규 일

자리 8142개에 달한다. 한전은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 일자리 3만개 이상 창출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비롯한 에너지신산업분야 기업이 233개로 75%를

에너지밸리에 거는 기대

차지했고, 전력기자재 생산 기업 74개(24%), 기타 3개(1%) 등이다. 이처럼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는 한전의 입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많은 입주 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 중소 제조업체인데다 신입 직원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통근버스도 없고 시내버스 노선도 연결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 자치단체가 통근버스나 시내버스 노선 신설, 단체 숙소 건립 등에 앞장 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이 그동안의 낙후를 떨쳐버리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자치단체, 지역민들이 하나로 뭉쳐 에너지밸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electimes.com,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

Advertisement for CTE TECH CO., LTD. featuring a lightbulb graphic and text about power transformer manufacturing. Includes product imag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주)건설뱅크 (Construction Bank) with a large headline '공사업 양도양수 전문!' and details about business acquisition services. Includes phone number 010-5268-4436 and website URL.